

# 국 어

## 해설위원 : 기미진 교수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윌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 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를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01. 맞춤법이 옳은 것은?

- ①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댓가를 치워야 한다.
- ② 매일 만나는 사람인데 오늘따라 왠지 멋있어 보인다.
- ③ 살코기는 장에 졸여 먹고 창자는 젓갈을 담궈 먹는다.
- ④ 명절에 아랫사람들은 윗어른께 인사를 드린다.

**[문제 분석]**

2017 국가직/지방직 대비 아침특강 기출변형문제풀이 제20회 08번

출제 영역 // 주의해야 할 문법 표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②

**[문제 해설]**

① [X] 한글맞춤법 제30항에 따르면 한자어에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가(代價)'는 [대 : ㄱ]로 발음하지만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치르다'는 'ㄹ' 탈락 동사이므로 어미 '어야'와 결합할 때 'ㄹ'가 탈락하고 '치러야'로 활용합니다.

♥ [기특+] - 두 음절로 된 한자어 중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예의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퇴간(退間), 회수(回數)

② [O] '왠지'는 '왜' '그런지' '모르게' 또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를 뜻하는 부사입니다. '왠지'는 '왜인지'에서 줄어든 말이므로 '왠지'로 써야 하고 '웬지'로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③ [X] '양념을 한 고기나 생선, 채소 따위를 국물에 넣고 바짝 끓여서 양념이 배어들게 하다가'는 의미의 동사는 '조리다'입니다. 따라서 '장에 졸여 먹고'는 '장에 조리 먹'으로 써야 합니다. '졸이다'는 '졸다(찌개, 국, 한약 따위의 물이 증발하여 분량이 적어지다)'의 사동사이며 '찌개'를 졸이다와 같이 씁니다. 또한 '담그다'는 'ㄹ' 탈락 동사이므로 어미 '어야'와 결합할 때 'ㄹ'가 탈락하고 '담궈'로 활용합니다.

④ [X] 표준어규정 제12항에 따르면, '윗목/아랫목, 윗자리/아랫자리'처럼 '위/아래'의 대립이 있을 때에는 '윗'을 취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만 '윗'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윗어른'은 잘못된 표기이며, '윗어른'이 맞는 표기입니다. '아랫사람'에 대응하여 '나'나 '할렷' 따위가 자기보다 위이거나 높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은 '윗사람'입니다.

### 02. ㉠~㉣의 뜻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데 가는 더 각시 본 듯도 흥더이고.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었더히야 니벌(離別) 흥고,  
 히 다 더 저른 날의 놀을 보라 가시논고.

어와 네어이고 내 수설 드러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남 ㉠ **괴안즘** 흥가마논  
 었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녀기실시  
 나도 님을 미더 ㉡ **균쁘디** 전혀 업서  
 ㉢ **이력야** 교퓌야 어저러이 구똥던디  
 반기시논 듯비치 네와 었디 다르신고.  
 ... (중략) ...

어와, 허스(虛事)로다. 이 님이 어딤 간고.  
 결의 니러 안자 창(窓)을 열고 바라보니  
 어엿는 그림재 날 조출 썬이로다.  
 출하리 식여디여 낙월(落月)이나 되야이서  
 님 겨신 창(窓) 안히 ㉣ **반드시** 비취리라.

각시님 돌이야카니와 구즌 비나 되쇼서.

- 정철, 『속미인곡』 -

- ① ㉠ : 사랑받음직
- ② ㉡ : 다른 생각이
- ③ ㉢ : 아양이야
- ④ ㉣ : 반드시

**[문제 분석]**

2017 국가직/지방직 대비 아침특강 기출변형문제풀이 제19회 12번 지문 일지

출제 영역 // 가사

출제 빈도 // ★★★★★

정답 // ④

**[문제 해설]**

- ① [O] '괴다'는 예스러운 표현으로 '특별히 귀여워하고 사랑하다'는 뜻입니다.
- ② [O] '균쁘디'는 '다른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 ③ [O] '이력'은 '아양' 또는 '응석'을 의미합니다.
- ④ [X] '반드시'는 '환히. 뚜렷이'를 의미하는 옛말입니다.

### 03. 다음에서 설명한 '겸양의 격률'을 사용한 대화문은?

'공손성의 원리'는 대화 참여자들 사이에서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말을 주고받는 태도를 중시하는 이론이다. 이 원리는 '요령', '관용', '찬동', '겸양', '동의'의 격률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우리 선조들은, 상대방의 칭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자신을 낮추어 말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 '겸양의 격률'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 ① 가: 집이 참 좋네요. 구석구석 어쩌면 이렇게 정돈이 잘 되어 있는 지...  
 사모님 살림 솜씨가 대단하신데요.  
 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 ② 가: 정운아, 날씨도 좋은데 우리 놀이공원이나 갈래?  
 나: 놀이공원? 좋지. 그런데 나는 오늘 뮤지컬 표를 예매해 뒤서 어려울 것 같아.
- ③ 가: 제가 귀가 안 좋아서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 제 목소리가 너무 작았군요. 죄송합니다.
- ④ 가: 유진아, 너는 노래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구나.  
 나: 아니에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는데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개념이나 진술 방식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④

**[문제 해설]**

- ① [X] 상대방에 대한 칭찬을 극대화하고 있으므로 찬동의 격률을 사용하였습니다.
- ② [X] 청유나 명령의 의문형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극대화하였으므로 요령의 격률을 사용하였습니다.
- ③ [X] 자신의 귀가 안 좋다는 이유를 들자, 자신의 목소리가 작았다고 대답하고 있으므로, 화자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화자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관용의 격률을 사용하였습니다.
- ④ [O] '격률(格率)'은 행위의 규범이나 윤리의 원칙을 의미합니다. '겸양의 격률'은 상대방의 칭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자신을 낮추어 말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것을 말하므로, 선지의 대화문에서는 '노래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구나'라는 칭찬에 대해서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고 부족한 점이 많다고 자신을 낮추어 말하고 있으므로 '겸양의 격률'을 사용했습니다.

♥ [기특+] - 공손성의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령의 격률: 상대방에게 부담이 가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경중하고 공손한 말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쪽으로 말하는 것이며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말하는 것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용의 격률: 요령의 격률을 화자의 관점에서 말한 것으로 화자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화자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것이다. 이 격률에 의하면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남이 하기 싫은 일을 자신이 떠맡음으로써 남을 높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지나라는 것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찬동의 격률: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극대화하는 것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겸양의 격률: 찬동의 격률을 화자의 관점에서 말한 것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하고 자신에 대한 비방을 극대화하는 것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의의 격률: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 사이의 차이점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의 일치점을 극대화하는 것이다.</li> </ul>

04.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외래문화의 무분별한 수입은 가치관의 ( ㉠ )을 초래하였다.
- 지역 간, 세대 간의 갈등을 ( ㉡ )하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갑니다.
- 아름다운 자연을 관광 자원으로 ( ㉢ )하려고 한다.

- |      |    |    |
|------|----|----|
| ㉠    | ㉡  | ㉢  |
| ① 혼돈 | 지양 | 개발 |
| ② 혼돈 | 지향 | 개발 |
| ③ 혼동 | 지양 | 개발 |
| ④ 혼동 | 지향 | 개발 |

**[문제 분석]**  
 2017 국가직/지방직 대비 아침특강 기술변형문제풀이 제20회 20번/제16회 08번  
 출제 영역 // 올바른 단어의 선택  
 출제 빈도 // ★★★★★  
 정답 // ①

**[문제 해설]**  
 ① [O] ㉠ '혼돈(混沌/渾沌)'은 '마구 뒤섞여 있어 갈피를 잡을 수 없음. 또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혼동(混同)'은 '구별하지 못하고 뒤섞여서 생각함을 의미합니다. 외래문화의 무분별한 수입은 어떤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 마구 뒤섞여 갈피를 잡을 수 없도록 한다는 의미이므로 '혼돈'을 쓰는 것이 적합합니다.  
 ㉡ '지향(志向)'은 '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어 향함. 또는 그 방향이나 그쪽으로 쏠리는 의지'를 의미하고 '지양(止揚)'은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하여 어떠한 것을 하지 아니함을 의미합니다. 지역 간, 세대 간의 갈등을 없애고 더 높은 단계인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자는 의미이므로 '지양'이 적합합니다.  
 ㉢ '개발(開發)'은 '토지나 천연자원 따위를 유용하게 만들. 또는 지식이나 재능 따위를 발달하게 함을 의미하고 '개발(啓發)'은 '슬기나 재능, 사상 따위를 일깨워 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발'이 적합합니다.

05.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글문학' 또는 '한글소설'이란 뭘까? 손쉽게, '한글을 표기 수단으로 삼은 문학', '한글로 쓴 소설'이라 말할 수 있을 테다. 한국 고전소설을 '한문소설/한글소설'로 나누는 관점에도, 사용하는 '문자'에 대한 의식이 개입해 있을 게다. 그런데 이것이 타당한 분류일까? 적어도, 자연스러운 분류일까? 그 관행 바깥에서 잠시만 생각해 보면, '한문소설'과 '한글소설'은 맞세울 수 없는 개념이라는 점이 또렷해진다. 그것은 한문과 한글이 맞세울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한문과 한글은 왜 맞세울 수 없는가? 한문은 고전중국어라는 자연언어나 그 자연언어로 짜인 텍스트를 가리키는 데 비해, 한글은 1446년에 반포된 표음문자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 둘은 층위가 크게 다르다. 한글과 맞세울 수 있는 개념은 한문이 아니라 한자다.

그러니까 한문소설은 성립될 수 있는 개념이지만, '한글소설'은 아예 성립될 수 없거나 성립될 수 있더라도 거의 쓸모없는 개념이다. '한글소설'이 성립될 수 없거나 거의 쓸모없는 개념인 것은, '로마자문소설'이나 '키릴문자소설'이 성립될 수 없거나 거의 쓸모없는 개념인 것과 마찬가지로 지이다.

이것은 '한글로 창작한다'거나 '한글로 번역한다'는 표현이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어떤 문자로 '표기'하거나 '전사'할 수는 있지만, '창작'하거나 '번역'할 수는 없다. 적어도 표준적 언어 사용에 따르면 그렇다. 텍스트를 짜는 것은 문자가 아니라 언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앞의 표현은 '한국어로 창작한다'거나 '한국어로 번역한다'로 고쳐져야 할 테다. 『홍길동전』은 한글로 창작된 소설이 아니라 한국어로 창작된 소설이고, 본디 한문으로 창작된 『설공찬전』은 한자에서 한글로 번역된 것이 아니라 고전중국어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것이다. 그러니까 효시든 아니든 『홍길동전』은 \_\_\_\_\_

- ① '한글소설'이 아니라 '한국어소설'이고, 따라서 '한글문학'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문학'에 속한다.
- ② '한국어소설'이 아니라 '한글소설'이고, 따라서 '한국어문학'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문학'에 속한다.
- ③ '한글소설'이 아니라 '한국어소설'이되 '한국어문학'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문학'에 속한다.
- ④ '한국어소설'이 아니라 '한글소설'이되 '한글문학'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문학'에 속한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전개될 내용 추리하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①

**[문제 해설]**  
 제시문에서는 '한글문학' 또는 '한글소설'은 '한글'을 표기 수단으로 삼은 문학과 소설을 말하는데, '한글'은 1446년 반포된 표음문자를 가리키는 말이므로 언어로 짜인 텍스트를 가리키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텍스트를 짜는 것은 문자가 아니라 언어이므로 『홍길동전』은 한글로 창작된 소설이 아니라 한국어로 창작된 소설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홍길동전』은 "한글소설"이 아니라 '한국어소설'이고, 따라서 '한글문학'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문학'에 속한다."입니다.

06. 밑줄 친 한자 표기가 옳은 것은?

- ① 계속되는 폭우로 마을 입구의 다리가 崩壞되었다.
- ② 이 일은 迅速하게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 ③ 나의 실수에 대해 당사자에게 정중하게 詐過했다.
- ④ 이번 고적 踏事は 영남 지방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문제 분석]**  
 2017 국가직/지방직 대비 아침특강 기술변형문제풀이 제6회 04번  
 출제 영역 // 한자  
 출제 빈도 // ★★★★★  
 정답 // ②

**[문제 해설]**  
 ① [X] '무너지고 깨어짐을 의미하는 '崩壞(무너질 붕, 무너질 괴)'는 '塊(덩어리 괴)'가 아니라 '壞(무너질 괴)'를 써야 합니다.  
 ② [O] '매우 날쌔고 빠름을 의미하는 '迅速(빠를 신, 빠를 속)'은 옳은 표기입니다.  
 ③ [X]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밝을 의미하는 '謝過(사례할 사, 지날 과)'는 '詐(속일 사)'가 아니라 '謝(사례할 사)'를 써야 합니다. 참고로 '잘못을 용서함'을 의미하는 '赦過(용서할 사, 지날 과)'는 '赦(용서할 사)'를 씁니다.  
 ④ [X]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조사함'을 의미하는 '踏査(밟을 답, 사실할 사)'는 '事(일 사)'가 아니라 '査(사실할 사)'를 써야 합니다.

07. ㉠~㉢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은 얼마나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있을까? 앞에서 단기 기억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단기 기억은 그 기억 용량에서나 기억 시간 면에서 모두 그 한계가 뚜렷하다. 장기 기억은 어떠한가?  
 우리가 어떤 기념식 행사에 참석했다고 가정하자. 국민의례 순서에서 애국가를 부르게 되었다. 이때 애국가 1절의 가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애국가 1절의 가사는 이미 ( ㉠ )하게 우리의 장기 기억 창고에 저장되어 있으며 언제라도 오류 없이 그 가사를 회상해 낼 수 있다. 그러나 애국가 2, 3, 4절로 갈수록 우리의 기억은 부정확해진다.  
 이처럼 어떤 기억은 평생 동안 유지되는 반면, 어떤 기억은 얼마간 지속되다가 ( ㉡ )되거나 부정확해진다.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은 자기가 공부하는 내용을 시험 날까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은 자기가 만나는 거래처 사람들의 이름과 직위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고자 애쓴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시험 전에 분명히 공부했던 내용을 시험 시간에 회상해 내지 못해 안타까웠던 경험, 분명히 인사를 나눈 바 있는 거래처 직원의 이름을 기억해 내지 못해서 ( ㉢ )스러웠던 경험을 우리는 누구나 가지고 있다.

- |          |        |        |
|----------|--------|--------|
| ㉠        | ㉡      | ㉢      |
| ① 건실(健實) | 소거(消去) | 곤욕(困辱) |
| ② 견고(堅固) | 소실(消失) | 혼곤(昏困) |
| ③ 확고(確固) | 소멸(消滅) | 곤혹(困惑) |
| ④ 확실(確實) | 소진(消盡) | 혼란(混亂) |

**[문제 분석]**  
 2018 기특한 국어 03 어휘-한자  
 출제 영역 // 생략된 정보 추리하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③ [X] ㉠은 애국가 1절의 가사가 장기 기억 창고에 저장되어 있다는 의미이므로 '태



11.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은 비밀이 드러날 것을 걱정하여 안절부절못했다.
- ② 학부모 간담회에는 약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 ③ 서류를 검토한 바 몇 가지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 ④ 아는 만큼 보인다는데 나에게는 그 가치를 평가할 만한 심미안이 부족하다.

[문제 분석]

2017 국가직/지방직 대비 아침특강 기출변형문제풀이 제19회 07번/제17회 07번/제3회 08번

출제 영역 // 띄어쓰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 ① [O] '안절부절못하다'는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다'는 의미의 한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합니다.
- ② [O] '-여'는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붙어 '그 수를 넘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합니다.
- ③ [X] '-니'는 받침 없는 동사 어간, '라' 받침인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오시' 뒤에 붙어 뒤 절에서 어떤 사실을 말하기 위하여 그 사실이 있गे 된 것과 관련된 과거의 어떤 상황을 미리 제시하는 데 쓰는 연결 어미입니다. 앞 절의 상황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검토한바'와 같이 붙여 써야 합니다.
- ④ [O] '만큼'은 '앞의 내용에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12. 비통사적 합성어로만 묶은 것은?

- ① 힘들다, 작은집, 돌아오다
- ② 감뽏다, 굳세다, 밤낮
- ③ 부슬비, 늦더위, 굶주리다
- ④ 빛나다, 보살피다, 오르내리다

[문제 분석]

2017 국가직/지방직 대비 아침특강 기출변형문제풀이 제19회 02번

출제 영역 // 합성어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 ① [X] '힘들다'는 '힘+(이)+들다'에서 조사가 생략된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작은집'은 관형어와 명사가 결합된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돌아오다'는 '돌다와 '오다'가 연결 어미 '-야로' 결합된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 ② [X] '감뽏다'는 '감+(-고)+뽏다'에서 연결 어미가 생략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굳세다'는 '굳+(-고)+세다'에서 연결 어미가 생략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밤낮'은 명사와 명사가 결합된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 ③ [O] '부슬비'는 부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늦더위'는 '늦+(-은)+더위'에서 관형사형 어미가 생략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굶주리다'는 '굶+(-어)+주리다'에서 연결 어미가 생략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참고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늦더위'를 '늦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늦'과 명사 '더위'가 결합된 파생어로 보고 있습니다.
- ④ [X] '빛나다'는 '빛+(이)+나다'에서 조사가 생략된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보살피다'는 '보+(-고)+살피다'에서 연결 어미가 생략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오르내리다'는 '오르+(-고)+내리다'에서 연결 어미가 생략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13. 높임법 사용이 옳은 것은?

- ① 교수님, 연구실에서 교수님을 직접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② 큰아버지, 오늘 약주를 많이 드셨는데,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 ③ 김 과장님, 부장님께서 빨리 오시라는데 오후에 시간 계십니까?
- ④ 철수야, 이것은 중요한 문제니까 부모님께 여쭙어 보고 결정할게.

[문제 분석]

2017 국가직/지방직 대비 아침특강 기출변형문제풀이 제15회 04번/제12회 04번

출제 영역 // 올바른 높임 표현

출제 빈도 // ★★★★★

정답 // ④

[문제 해설]

- ① [X] 교수님은 높임의 대상이므로 '보고'가 아닌 '웃어른을 대하여 보다'라는 의미의 '뵈다'의 활용형인 '뵈고'를 써야 합니다.
- ② [X] 큰아버지는 높임의 대상이므로 '잡이' 아닌 '땀'을 써야 합니다.
- ③ [X] 직장에서는 압존법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과장님과 부장님을 모두 선어말 어미 '-시-'를 이용하여 높여야 합니다. 따라서 '오시라는데(오시라고 하는데)'는 '오시라시는데(오시라고 하시는데)'로 고쳐 써야 합니다. 또한 '과장님의 시간'은 직접 높임이 아닌 간접 높임을 사용해야 하므로 '시간 계십니까?'는 '시간 있으십니까?'로 써야 합니다.
- ④ [O] 부사어인 '부모님'을 조사 '께'와 동사 '여쭙다'로 높였으므로 객체 높임법이 올바르게 사용되었습니다.

문14.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초등학교 앞에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쿨존이 지정되어 있다. 구청에서는 ㉠ 도로 노면에 노란색 띠줄을 표시하거나 ㉡ 어린이 보호 또는 속도 제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전자가 주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 어린이 교통사고는 많은 날 많이 일어난다고 한다.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판단력과 ㉣ 예지력(豫知力)이 떨어져서 위급한 사태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때문에 운전자들은 스쿨존에서 운전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 ① ㉠: 의미가 중복되므로 '도로 노면'을 '노면'으로 수정한다.
- ② ㉡: 앞뒤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그리고'를 '그러나'로 수정한다.
- ③ ㉢: 중심 화제에서 벗어난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 ④ ㉣: 문맥에 맞지 않으므로 '예지력(豫知力)'을 '추진력'으로 바꾼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올바른 문장쓰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④

[문제 해설]

- ① [O] '도로(道路)'와 '노면(路面)'은 같은 '路(길 로)'자를 사용하여 의미가 중복되므로 '노면'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② [O] 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전자를 주의시킨다는 앞의 내용과 이러한 주의 사항을 지키지 않아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뒤에 있는 내용은 반대 관계이므로 역접의 접속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③ [O] 제시문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지, 날씨에 따른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④ [X] 문맥상 위급한 사태에 대처하는 능력과 관련 있는 단어가 와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아는 능력'을 의미하는 예지력(豫知力)이나 '목표를 향하여 밀고 나아가는 힘'을 의미하는 추진력(推進力)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리 헤아려 짐작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예측력(豫測力)과 같은 단어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15. 다음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머귀 잎 지고야 알겠도다 가을인 줄을  
세우청강(細雨淸江) 서느렵다 밤 기운이야  
천리에 님 이별하고 잠 못 들어 하노라

- ① 이별한 임에 대한 원망의 감정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다.
- ② 반어법을 동원하여 가을의 정취를 잘 나타내고 있다.
- ③ 점강법을 활용하여 계절 감각을 섬세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④ 이별한 임을 잊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시조

출제 빈도 // ★★★★★

정답 // ④

[문제 해설]

- ① [X] 제시문에서는 이별한 임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은 드러나 있지만 원망의 감정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 ② [X] '반어법'은 '참뽏는 반대되는 말을 하여 문장의 의미를 강화하는 수사법'을 말하며 제시문에서는 이러한 수사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③ [X] '점강법'은 크고 높고 강한 것에서부터 점차 작고 낮고 약한 것으로 끌어 내려 표현함으로써 강조의 효과를 얻으려는 수사법을 의미하며 제시문에서는 이러한 수사법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 ④ [O] 종장에서 '천리에 님 이별하고 잠 못 들어 하노라'를 통해 이별한 임을 잊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이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 다음 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르릉 ~ 광!’ 하고 천둥이 울리면 사람들은 누구나 두려워한다. 그래서 ‘뇌동(雷同)’이란 말이 생겨났다. 내가 우렛소리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간담이 서늘하였다. 하지만 반복해서 나의 잘못을 고쳐 허물을 발견하지 못한 뒤에야 몸이 조금 편안해졌다.

다만 한 가지 꺼림칙한 일이 있다. 내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서 ‘화부(華父)가 지나가는 미인에게 눈길을 주는 일’이 나오는 대목을 읽고는 그 일에 대해 비난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면 눈길을 주지 않으려고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돌려 달아났다. 그러나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돌리는 것은 그런 마음이 없지 않다는 것이니, 이것만은 스스로 미심쩍은 일이다.

일반 사람의 마음을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 또 하나 있다. 남이 나를 칭찬하면 아주 기뻐하고, 비방하면 몹시 언짢아한다. 이것은 비록 우레가 칠 때 두려워하는 것과는 다른 일이지만, 또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옛사람 중에는 깜깜한 밤에도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한다. 내가 어찌 이런 사람에게 미칠 수 있겠는가?

- 이규보, 『뇌설』 -

- ①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다.
- ② 필자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비교하며 제시하고 있다.
- ③ 권위 있는 자의 말을 인용해 필자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문답 형식을 통해 독자 스스로 깨달음을 얻도록 하고 있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고전 수필

출제 빈도 // ★★★★★

정답 // ①

[문제 해설]

- ① [O] 필자는 자신이 우렛소리를 들었을 때와 미인에게 눈길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일 그리고 남이 자기를 칭찬하면 아주 기뻐하고, 비방하면 몹시 언짢아했던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② [X] 필자는 자신의 체험을 들어 이야기 하고 있을 뿐, 다른 사람의 생각과 비교하며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③ [X] 필자는 자신이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서 읽은 대목과 옛사람의 사례를 들고 있기는 하지만 권위 있는 자의 말을 인용해 필자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④ [X] 필자는 제시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어찌 이런 사람에게 미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답 형식을 통해 독자 스스로 깨달음을 얻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